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 “누가복음 6장 21절~38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6장 21절~38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53장(새찬송가 317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38절까지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시고 열두 사도를 지명하여 세우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 높지 아니한 산 위의 평평한 곳에 운집한 무리들에게로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후에 가르치신 말씀의 첫 부분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나니”라고 한 대상과 그 내용은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여 ‘주린 자’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겪는 굶주림의 고난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심령상태가 되게 한다면 그 결핍의 경험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속담처럼 굶주림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나니”라고 한 대상과 그 내용은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는’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억제할 수 없는 심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울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하나

님 앞에서 슬픈 감정을 토로하거나 우는 것은 자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에서 혹은 교회당에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복이 있도다.”라고 한 대상과 그 내용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입니다. “인자를 인하여”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핍박의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였습니다.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였습니까. 참고 견디는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기뻐하고 뛰노는 적극적인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포괄적인 이유이고 그 구체적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상을 사람에게서 받는 상 정도로 여긴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며 영원성을 지닌 상입니다. 하늘에서의 상에 관련하여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춤출 정도로 그 상은 큰 상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는 미움과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실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혹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해도 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잘 하였도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면 기뻐하고 춤추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찢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네 개의 저주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찢저”에 해당되는 첫 번째 대상(對象)은 ‘부요한 자’입니다. “화 있을찢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부요한 자라고 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빈약합니다. 그가 가진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한 위로를 체험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화(禍)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위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 설교를 통하여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지내는 사람을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배부른 자’입니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하였습니다. 배부름은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것에 의하여 만족함으로 영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의 심령은 공허한 상태를 면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인 겸 평론가이고 극작가인 토머스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 ‘가득한 인간

텅 빈 인간’이라고 형용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웃는 자’입니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웃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 오직 세상 일로 인하여 웃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울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만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받은 그대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와 세속에 빠진 왕과 백성들에게는 미움 받고 배척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의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 시국관을 말하면 이를 듣기 싫어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처신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화가 있도다.”라는 선언을 받은 자가 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27절부터는 보편적 윤리와는 차별되는 성도들의 차원 높은 사랑과 자비의 구체적 실천 요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입니다. 둘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입니다. 셋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넷째는,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입니다. 다섯째는,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입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된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구원 얻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육체와 생명과 재산에 막중한 고통, 피해, 손상을 입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수용하고 감내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행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감내할만한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도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하므로 인하여 결국은 피차에 더 큰 고통과 손실과 피해를 초래합니다. 당면한 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뒤따르는 고통과 손상의 크기는 천양지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면하게 되는 일이 감내할 정도이나 아니냐를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의 크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자기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교훈은 예전부터 성인군자들의 교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



였습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黃金律)'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대인관계에 이 황금률을 적용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즐거움과 유익이 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모든 사업 경영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감언이설(甘言利說)이나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는 방식은 장구지책(長久之策)이 될 수 없습니다. 곧 속셈이 드러나게 되고 잃어 버린 신용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대인관계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가로 놓인 막대기의 높이를 뛰어 넘게 되면 다음에는 그 위치를 더 높여 도전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수준을 상향 조정해 놓으셨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어디까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율법으로 주신 기준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법치(法治)가 제거되고 온정(溫情)만 있는 사회가 되면 자유와 행복만이 충만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매울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덕률(道德律)과 법률(法律)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불필요한 세상이 되려면 악함과 불의와 기만이 아주 없어야 합니다. 다만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비판과 정죄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비판과 정죄를 절제하거나 삼갈 것입니다. 피차에 아무 유익이 없고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면 증오와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용서에는 회개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부하게 되려면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지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줌으로써 풍성하게 되는 길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한 후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법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3-35).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줄 수 있는 마음과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가되는 복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이 부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유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계의 순환법칙은 주는 것이 소모하고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① 지구에 있는 물의 97%가량은 염분을 가진 바닷물이고 2%는 빙하와 만년설 상태로 있습니다. 담수는 호수와 강물 그리고 지하수로 1%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소량인 담수가 지속적으로 보충되지 않는다면 강과 호수는 마르고 들판과 삼림의 초목은 고사하고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물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대양과 대기 그리고 육지를 끊임없는 주기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물의 순환을 지속시켜 주는 동력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바다표면을 가열하여 물을 수증기로 변화시킵니다. 호수와 하천, 토양 속의 물, 식물의 잎, 그리고 빙하의 물도 증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증기는 대기 속에서 응결하여 수십억 개의 미세한 물방울과 얼음의 결정이 되어 구름을 이룹니다. 결국 구름 속의 수분이 비나 눈 또는 다른 강우 현상으로 지상에 되돌아옵니다. 이런 순환을 통하여 생명력이 가득한 지구가 되게 합니다.

② 비옥한 토양과 식물도 순환 법칙에 의해 유지됩니다. 흙이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면 식물은 낙엽으로 혹은 풀과 나무가 썩어서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는 광대한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식물이 가장 번성하는 지역입니다. 거대한 나무와 덩굴 그리고 무성한 각종 식물들이 온도와 습도가 높은 기후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열대 우림의 토양은 놀라우리만치 척박합니다. 기본적인 영양분들이 심하고 즐기치게 내리는 비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도가 유지되는 것은 급속히 성장한 식물들의 잔해가 곧장 부패되어 다시 영양분을 토양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③ 식물은 꽃으로 화분과 꿀을 나비와 벌에게 제공하면 나비와 벌은 꽃가루받이가 되도록 하여 줍니다.

④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비교하는 것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적절한 교훈을 이끌어 낼 만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이를 요단강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보냅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고 어부들의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사해는 해변보다 평균 394m나 아래에 있으며, 더욱이 사해의 바닥은 해변보다 792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어주는 것이 없으므로 사해의 염분 농도가 바다보다 약 여섯 배가 높아서 물고기와 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교훈을 통하여 줌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진리를 겸허하게 배우고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①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합왕이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후로 맞았습니다. 바알 신 숭배자인 이세벨로 인하여 아합왕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로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섰을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주시오.” 하였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두어 개 주어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제공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지나기까지 그 여인에게 기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②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드리고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6-8).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밭에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③ 사도 바울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꾸준히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히자 생활필수품뿐 아니라 에바브로도도까지 보내어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움을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원하여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 4:18)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축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의 목록을 헤아려 보면 재물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 지식, 지혜, 재능, 시간, 활동력, 기도, 위로와 격려, 친절, 미소(微笑), 경청(傾聽)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즐거움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